

효성화학, 체질 개선 본격화… 자산매각·PP사업 ‘투트랙’

〈폴리프로필렌〉

베트남법인 지분 49% 매각
3153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업계, 추가 구조조정 전망도

효성화학이 업황 부진 탈피를 위해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베트남 법인의 실적 부진 장기화로 촉발된 위기 속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며 거래 재개와 재무 상태 개선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비핵심 자산 정리’와 ‘본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150억원, 영업손실 59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36%, 영업이익은 44.5%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가운데 효성화학은 베트남 법인에 대한 대규모 채무보증인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다.



효성화학 삼불화질소(NF3) 생산 공장.

/효성

효성화학은 최근 베트남 법인인 효성비나케미칼의 지분 49%를 3964억원에 매각하는 동시에 315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회사 측은 재무구조 개선과 채무상환 자금 마련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효성화학은 베트남법인을 완전히 매

각하는 것이 아닌 지배력은 유지한 채 일부 자산만 유동화하는 형태로 거래를 추진했다. 매각 이후에는 폴리프로필렌(PP) 사업에 집중해 매출과 이익 증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도 고정비 부담이 컸던 비핵심 사업 구조가 슬림화되면서 원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동명 LG엔솔 사장, 美 배터리 인재 확보 나서

시카고서 글로벌 인재채용 행사
김 사장, 현장 지휘… 참석자 소통

LG에너지솔루션이 김동명 CEO(사장)를 비롯 주요 경영진들을 미국에 보내 미래 배터리 시장을 이끌 현지 핵심 인재 유치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글로벌 우수 인재 채용 행사 ‘BTC’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B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매년 세계 각국의 석·박사급 인재들을 초청해 회사의 기술력과 비전을 소개하는 채용 연계형 행사다. 지난 2023년 샌프란시스코, 2024년 뉴욕에 이어 올해는 시카고에서 개최됐다.

김 사장은 “배터리 산업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굉장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며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글로벌 인재 채용 행사 BTC in Chicago에서 발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성장 파트너’를 찾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 및 주요 경영진들은 참석자에게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 리더십 및 R&D 연구 사례를 비롯해 사업 비전,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소통했다.

네트워킹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참

석자들은 초청 인재 연구발표와 포스터 세션 등을 통해 상호 연구분야를 공유하고 최신 연구 트렌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도 실무진이 직접 배터리 주요 기술, 구체적인 연구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였다.

김 사장은 ‘CEO 간담회’를 통해 인재들과 직접 만나 본인의 ‘커리어 스토리’를 소개하고 R&D 기반의 커리어 패스와 성장에 필요한 역량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과 소통했다.

그는 “각 분야의 탁월한 잠재력을 지닌 여러분들과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정을 생각하니 가슴 뛰고 벅찬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행사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첫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AI 가전 트로이카’ 캠페인

삼성전자는 자사 에어컨·세탁기·냉장고의 대표 광고모델이었던 김연아, 한가인, 전지현과 함께 새로운 인공지능(AI) 가전 광고 ‘AI 가전 트로이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에어컨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를 소개하며 ‘AI 가전=삼성’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캠페인 티징 영상 ‘소환 편’에는 세 모델이 과거 자신이 출연한 광고를 회상하며 최신 AI 가전을 소개하는 모습이 담겼다.

‘AI 가전 트로이카’ 캠페인 영상은 삼성전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현대차그룹 3사,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현대차·기아·모비스〉

견제기능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사외이사들의 대표인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더 투명한 경영 의사 결정 체계를 갖춘다.

현대차 등 3사는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사외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경영진에 경영자료와 현안 보고를 요청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올레드, 美·英 등 글로벌 미디어 호평

베스트 바이·에니터스 초이스 등 선정

삼성전자가 2025년형 삼성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가 해외 주요 전문 테크 미디어들로부터 연이어 호평을 받으며 기술력과 완성도를 입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 OLED 라인업을 3개 시리즈, 14개 모델로 확대했다. 빛 반사를 줄여 눈부심을 차단하는 ‘글레이프리’ 기능, 저해상도 영상을 4K급으로 시청할 수 있는 ‘4K AI 업스케일링 프로’ 기술 등이 특징이다.

영국 정보기술(IT) 매체 ‘테크레이더’는 삼성 OLED SF95를 “2024년 올해의 TV로 선정된 전작보다 화질 디테일까지 강화된 제품”이라며 “글레이프리 기술로 밝은 환경에서도 빛 반사를 줄여준다”고 호평했다.

또 다른 영국 IT 매체 ‘AV포럼’도 SF95를 “가격 대비 최고의 QD-OLED TV”라며 ‘베스트 바이’로 선정했다.

미국 홈 엔터테인먼트 기기 전문 매



2025년형 삼성 올레드 SF95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체 ‘홈시어터리뷰’는 SF95를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하고 “미니 LED를 압도한 가장 밝은 TV”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 유명 테크미디어 ‘탐스가이드’는 “높은 밝기와 눈부심 방지 기술, AI 기능, 매우 얇은 디자인 등을 갖춘 삼성 최고의 OLED TV”라고 평가했다.

삼성 OLED SF90 모델에 대해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영국 IT 매체 트러스티드리뷰는 SF90 모델에 대해 테스트 점수 만점을 부여하며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 높은 화질, 게이밍 기능까지 문제점을 찾기 어려운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삼성, 상반기 입사 지원자 GSAT 실시

삼성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관계사 16곳의 2025년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GSAT를 실시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오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6개사다.

삼성은 지난 3월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5월 면접 ▲건강검진을 거쳐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은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능력 위주의 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1957년 국내 최초로 신입사원 공채를 도입한 이후 약 70년간 제도를 이어오고 있다. 1993년에는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를 도입하고 1995년 지원 자격 요건에서 학력을 제외하는 등 ▲성별 ▲학력 ▲국적 등을 배제한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또한 ▲직급 통폐합을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직급별 체류 연한 폐지 ▲평가 제도 개선 등 인사 제도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혜민 기자